

여수, 세계섬박람회 누적 관람객 100만 명 돌파

저녁 공연·수산물장터 인기… 순천 부부 100만 번째 관람객 선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한글날 연휴(10.9~10) 이틀 동안 25만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활기를 이어갔다. 가을 노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연부터 수산물 할인전과 김밥 시식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펼쳐지면서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10일에는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개막 이후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 노을 재즈에서 빅쇼까지… 주행사장은 공연·장터, 부행사장은 김밥 축제

주행사장은 저녁마다 무대가 바뀌었다. 9일 열린무대의 여수 재즈 페스티벌은 가을 노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무대로 관객의 호응을 얻었고, 10일 저녁에는 방승민 박경림과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재능기부로 꾸민 '더 빅쇼(THE BIG SHOW)'가 열렸다. 뮤지컬 배우 김경선과

크로스오버 테너 류하나가 특별 출연한 이 무대는 콘서트와 토크를 오가며 객석을 채웠고, 공연이 끝난 밤하늘에는 여수 앞바다 미남크루즈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 박람회장 위로 번졌다. 바다에 비친 불빛과 주제섬 미디어파사드가 겹치며 열린무대를 나서던 관람객들의 발길을 한 번 더 붙잡았다.

한편, 낮에는 광장이 장터가 됐다. 10일 수협중앙회 수산물 특별 할인전에서는 서대·장어·전복·김 등을 시중가보다 20~50% 저렴하게 판매해, 구매를 위해 관람객이 몰렸다. 여기에 주제섬 앞 잔디광장에서 전복계란김밥 600인분이 두 차례 시식 행사도 열려, 관람객들의 인기를 채우며 호응을 얻었다. 수산물 할인전은 오는 17일(토)에도 진행된다.

부행사장인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9일 개막한 '2026 전남광주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에도 이

틀간 관람객이 몰리며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이 나란히 북적였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가나 불타의 '아일랜드 프렌즈데이' 공연과 김밥&소금 페스티벌 마지막 날 행사가 이어진다.

■ 연휴 한가운데 100만 번째 관람객 …“오늘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연휴 이틀째인 10일 오후에는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까지 누적 관람객은 106만 4,079명으로 집계됐다.

100만 번째 관람객은 순천에 사는 조모(56)·유모(56) 부부로, 휴일을 맞아 가까운 여수를 찾았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 부부는 "오늘 하루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기쁨을 전했고, 조직위는 앞뒤로 입장한 관람객에게도 '아차상'을 선물했다.

/이유빈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공연과 수산물 장터를 즐기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장애 인식 개선 '공감 콘서트' 개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오는 13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공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 체험형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 공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연주단 '행복한 우리 양상불' 공연, 사이영 사회적협동조합의 샌드아트 공연, 가수 하림의 공연과 공감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행복한 우리 양상불은 '리베르탱고' 등 5곡을 연주하고, 사이영 사회적협동조합은 '나는 반딧불' 등 2곡을 샌드아트로 표현해 음악과 그림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불링팀, 시민의 날 맞아 재능기부 펼쳐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광양여울리센터 불링장에서 광양시직장운동경기부 불링팀이 재능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 직장운동경기부와 지역사회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내 중학교 재학생 12명이 참여했으며, 광양시직장운동경기부 불링팀 선수들은 학생들에게 기본 자세와 투구 방법, 경기 예절 등을 지도했다. 이어 학생들과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친선 대결을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 학생들은 불링 레슨과 게임, 불링화 대어 등을 무료로 지원받았으며,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 진행을 위한 기본 수칙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윤이남 체육과장은 "이번 재능기부가 학생들이 스포츠를 친근하게 접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직장운동경기부 불링팀은 지난 8월에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불링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확대하고 지역 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와 생활체육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체육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보고회 개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2일 공약사항의 확정과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위해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9기 군정 방향과 공약 실천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약사업별 추진 내용과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선9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31개 사업으로, 곡성군은 각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천계획을 구체화해 공약 이행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별 여

건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살펴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군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약 추진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탬 예정이다.

곡성군은 보고회 의견을 공약 실천 계획에 반영해 오는 16일까지 계획서를 확정·공개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용방면,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안전손잡이 지원사업 추진

구례군 용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대는 지난 10월 8일 관내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집 안전손잡이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가구를 선정해 화장실 변기와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대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황미경 용방면장은 "작은 안전손

잡이 하나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의 큰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대가 협력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대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선섭 기자

